

연중 제 20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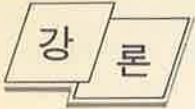
제 1독서 : 잠언 9, 1-6

제 2독서 : 에페 5, 15-20

복 음 : 요한 6, 51-58

순정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요한 6, 56)



구원의 빵



김기수 신부 / 신동 천주교회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 안에서 산다.”(요한 6, 53-56)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며 성체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묘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 세상 마칠 때까지 성부께 바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을 새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시어 예수님 안에서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성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 이것이 내 피의 잔이니”라는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이 당신 몸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어떠한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된 바로 그 말씀이다. 주께서 명하시되 하늘이 되었고, 주 명하시되 세상이 되었고, 주 명하시되 모든 조물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유능한가 보라. 주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생길만큼 유능하다면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네게 자신있게 대답하노니, “축성하여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던 것을 축성한 후에는 세상에 살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최후만찬 때 주께서 명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길도 영성체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현존시키기 위해 축성된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잘 성체를 영하지 않고, 세속적인 일로 미사에 빠지거나, 아무 의미없이 성체를 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지 반성해 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끝없는 영생을 위한 영혼의 양식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영혼의 양식을 등한시해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의 광복. 우리의 책임

육완태(토마스 아퀴나스)

해방 49년을 맞았다.

일제 하의 온갖 고난과 질곡을 벗어나 이 민족에게 밝은 태양을 비춰준 광복의 기쁨은 3천만 민족(당시)에게 밝은 미래로서의 서곡으로 다가왔었다.

그로부터 49년.

우리는 매년 이 때가 되면 또 다른 염원에 목말라 한다.

분단(分斷)국가의 설움이 절절히 배어나오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통일への 기대는 술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50년대 전쟁의 회오리에까지 휩싸이게 됐다.

그 어느 누가 통일을 염원하지 않을까마는 남북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험사리 이뤄지지 않을 일이었다.

이미 반세기가 지나가버린 지금. 그때 태어났던 아이도 이제 50세의 중늙은이가 되버린 이 마당에 해방의 기쁨운운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해방 후의 이 시점까지 남북은 모든 것이 이질화(異質化)되고 말았다.

정치적인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생활풍속, 언어, 제도, 교육, 문화 등등 모든 문제가 서로 다른 틀로 변모해 왔다.

심지어 경직되어진 북한인들의 표정마저 우리들의 가슴을 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급년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있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했던 것이 그것이다.

비록 미국의 전임 대통령 카터의 주선이 주효하기는 했어도 남북통일への 새로운 이정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지난 달 25일엔 남북대표가 만나 요즘 한창 시끄러운 핵문제를 비롯해서 남북의 인적, 물적교류 등이 논의됐을 것이다. 특히 경제교류 등을 통한 서로의 이해폭을 늘리고, 인적교류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환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당장은 통일이 어렵더라도 서로 신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기획였다는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결국 김일성의 사망으로 일시 물거품이 되었겠으나 아직도 기회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단 하나 아직도 우리를 개운찮게 하는 것은 김일성의 장례에 TV화면으로 보여준 북한 주민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이다.

통일이 되고 나서의 일이 걱정되는 단면이기도 하다. 경직된 사회의 이질감을 우리와 어떻게 합일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문제는 화해의 장(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데 있다.

서로 이해하고 도움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민족 대화 합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지내온 49년이 길기도 하겠거니와 역사의 장에서 보면 길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의 역사인식에서 정확함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해방 후의 혼란함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하가 복구되기까지의 30년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빛나는 미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어쩌면 광복과 6.25로 이어지던 시대의 주역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제2의 광복(통일)은 당연히 다음 세대의 책임으로 대물림 지어졌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왔던, 그리고 슬기로왔던 우리 민족이었다. 이제 통일을 향해 서로 사랑의 힘을 모을 때가 됐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밝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

숲정이 산책



거룩한 죽음...



아버지의 죽음

성모성심수녀회 김 레오 수녀 / 천주교 전주교구청

십수년 만에 찾아온 폭염만큼이나 타는 나의 마음을 하늘이 알까? 땅이 알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번에는 꼭 고향에 가겠다던 나의 아버님은 지난 7월12일 72세의 나이로 이산가족의 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 들려 주시던 얘기를 회상해보면, 나의 아버님의 고향은 강원도 평강군 해사면이고, 아버님은 1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나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인 어머님과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6.25사변이 일어나 폭격으로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잃게 되었고, 당시 젊은 남자들은 모두 징용으로 끌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광나루 수용소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아버님은 가족들과 헤어져 외할머니 치마폭 속에 꼭꼭 숨어 미군 트럭을 타고 월남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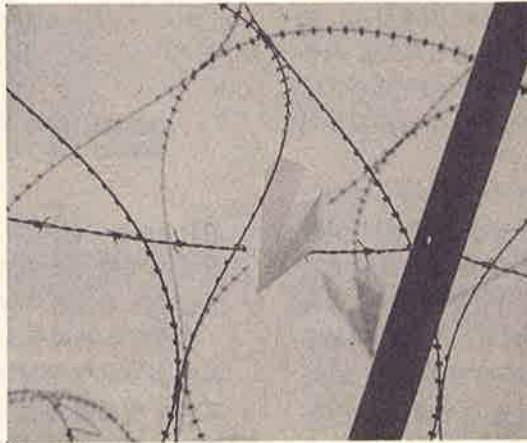
그런데 아버님을 실은 피난민 차는 이리 수용소로 가고 말았고, 어머님과 가족(고모와 외삼촌)들은 광나루 수용소에서 몇일을 찾아 헤메다가, 이리 수용소로 가보라는 피난민들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석탄 실은 기차에 몸을 숨기고 이리에 도착, 아버님과 극적인 상봉을 했답니다.

고향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던 아버님! 아버님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즉시 북으로 북으로 고향 찾아 나섰지만, 38선에 가로막혀 고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고향 가까이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오덕리에 정착, 3남2녀를 두셨고, 15년 전에는 좀더 고향 가까이에서 살고 싶으시다며 '민통선'에 들어

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44년을 오직 평화통일만을 기다리시면서, 눈앞에 뵈히 보이는 고향 들녘과 전산을 바라보며 사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거셨던 아버님! 이제 머지 않아 고향에 갈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데 했더니, 갑작스런 김일성의 죽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숨만 쉬우더니 지난 7월12일, 당신 고향 가까이 있는 농토를 둘러보고 오시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시고, 지금은 실향민들이 1년에 1번씩 모여 제사도 지내고 외로움도 달래는, 실향민들의 낯이 문헌 '터풀'이라는 깊은 산 속에 고이 잠들고 계십니다.

아버님! 이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요즈음 같으면 염원하던 통일이 왜 그리 멀게만 느껴지는지 답답하지만 모든이가 하나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못난 여식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용기를 내어 봅니다. 그리고 남·북한 정치인, 종교인, 노동자, 농민,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민족의 대 과제인 평화통일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화해하고 일치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통일의 그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특 집

성모 승천 대축일의 해방,

조국의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 50년, 8.15해방 50년제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난 '89년 8월15일 판문점을 넘어 오셨던, 고뇌에 찬 문규현 신부님의 글을 소개한다.

해방 '상록수'의 작가 심 훈이 "그 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덕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 날이..." 하고선 민족의 타는 심정을 대신하여 그리던 해방이다.

조선 땅은 백성이 일제 식민통치의 희생물로, 또 침략전쟁의 뒷감당을 하느라 물질적 정신적으로 치루어야 했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이 민족에게 남겨 놓은 갖가지 유산은 참담했다.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라는 망국민의 설움, 해방은 그 모든 상태의 끝을 의미했다. 당장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당장에 누더기가 새 옷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고 조선 사람의 힘으로 조선 사람을 위한 노동,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했던 것이다.

굶주림으로, 총알받이로, 위안부로 온 나라 민중이 끌려가고 죽어가고 유린당하던 그 시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는 어떤 존재였다. 무기 하나를 얻기 위해 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일도 마다 않으며 수많은 이들이 항일투쟁의 대열에서 들끓고 있을 때, 순교정신을 높이 외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었다.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암살하자 그를 살인자라며, 천주교인이 절대 그런 반역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었다. 3.1운동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운동을 단죄했다. 더구나 1932년부터 교리를 바꾸어가며 허용된



장충성당 앞에서 제의를 입고 신자들과 함께 한 베네르소 신부의 문규현 신부

신사참배는 '현지 적응주의 선교'라는 명분으로 교황청에 의하여 수용되고, 조선천주교회와 일제는 별다른 마찰없는 관계를 지속시켜 갔다.

무신론과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과 우려가 일제의 방공정책과 잘 맞아 떨어졌다는 점 또한, 교회가 일제를 옹호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교회는 사회주의 사상 확산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의미를 항일민족운동과 계급간 불평등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의 지도자, 즉 주로 선교사들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양자택일이라는 관념적이고 극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용공이 항일과 거의 동의어가 되어 있었던 시기에 일제의 사상공작의 편에서 버렸다.

해방의 그 날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다. 교회는 해방을 성모님의 보호와 주님의 안배로 받아들였다.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되기 위해 교회가 민족 앞에 내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급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할 티 생 수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용머리 바자회

〈신축기금 마련〉

· 때 : 9월9일~12일
· 장소 : 용머리 성당

마 일 생 수

생수판매 이익금은 장애인 복지 및
성전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작은에수회 박성구(요셉)신부
회 장
전주지역회 박병렬(베드로)
☎ (0652)225-4678
호출기 015-682-4678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



문규현 신부 / 요촌 천주교회

놓아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였다. 해방 공간은 한국천주교회가 자신이 지은 큰 죄를 속속들이 고백하고 민족의 교회로 거듭 날 수 있었던 참된 기회였다. 성모님께서 주신 은총, 선물이란 교회에게 바로 이런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음일 터이다. 그러나 교회가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기에는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너무도 부족했다.

해방 공간의 교회는 새 옷에 기운 낡은 천조차처럼 '참회'없이, 자기 반성없이 새 하늘 새 땅을 누렸다. 오히려 교회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며 해방정국의 물결에 개입해 들어갔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맹목적이고 절대화된 반공주의로 교회의 모든 가치 판단과 행동의 잣대로 삼았다. 극우 반공 논리가 아니면, 천일과 청산요구도, 자주독립의 요구도, 민생고 해결요구도 모두 좌익의 선동이라느니 하며 몰아부쳤다. 일체의 다른 주장, 견해는 묵살되었다. 오로지 반공으로써만 이 민족 공동체는 일치의 기쁨을 맛보야 할 것이었다. 그 결과, 해방되고 1년도 안된 시점인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나오자 교회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온 관심과 노력이 교황청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끌어내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바쳐졌다. 가히 민족 공동체의 분열과 분단, 그 체제가 굳어지기까지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등공신이였다.

외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민족이 그

역압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기필코 오리라는 믿음이 없었던 교회, 그 백성의 신음과 아우성을 들으시고 아파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믿지 못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느 때 도착하게 될 지 모르고, 어느 때 맞이할 지 모를 하느님 나라는 어찌 믿었을까 싶다.

'신공안 정국'이 회오리치는 이 시대, 화해니 일치니 하며 말로써 민족의 복음화를 외친다 한들 공허하기 짝이 없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민족의 유일한 복음이 통일터이다. 이제 이 민족에게 보여야 할 교회의 애정 표현은 권력의 언저리를 벗어나 분단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통일을 열망하는 이들의 가슴으로 민족의 통일을 향해 헌신하는 삶, 그에 온전히 봉헌하는 모습 그 자체이리라. 우리가 민족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고 갈 때만이 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 부활의 신비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리라. 그제서야 그리스도 환히 웃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리라. 참된 종교의 모습을 민족도 무신론자도 보게 되리라. 그때야 우리는 하나가 되리라.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



요십이 (1094) 김병오



우전 성당 기공식

8월28일(일) 오전 11시30분
주례 : 이 병 호 주교

N. I. P (새본당상) 수련회

- 일시 : 8월19일~21일
- 주관 : 천주교구 M.B.W 추진위원회
- 대상 : 본당신부, 수녀, 사목위원 (각 본당 3명 이상)
- 참가비 : 1인 30,000원
- 연락처 : 화산천주교회 221-9842
금마천주교회 53-7187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성서잡지 아곱의 우물

매일의 복음말씀을 알기 쉽게 목상하도록 돕는 성서잡지 '아곱의 우물'이 나왔습니다.

• 1권 1,000원, 1년 10,000원
• 정기구독신청 ☎ 252-3398
성바오로 서원

가톨릭다이제스트 전주 지국장 모임(주재가자)

전주교구내 선교활동에 관심을 갖고 영업분야에 유 경험자 우대(점적 가능)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102번지
- 문의 : ☎ (02) 711-6707~9
FAX : (02) 711-2733

천주교 문학 신인 문학상 작품 모집

1. 자격 : 가톨릭 교우에 한함
2. 작품 : 시, 소설, 동화, 희곡, 수필
3. 마감일자 : 1994년 10월 5일
4. 발표 : 천주교 문학 겨울호
5. 문의 : (02) 886-4303, 886-4980
성황석두 루가서원

뿌리를 찾아서 45

동산 성당

— 신앙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공동체 —



전주시의 초입에 자리한 동산 성당은 호남 최초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던 초남리와 근접하여 오래전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구 교우들이 푸른평야의 풍요로운 삶을 바탕으로 굳은 신앙을 다져왔다.

1984년 2월 덕진 본당의 관할구역인 동산촌 공소에 본당의 신설이 시급함을 느낀 당시 덕진 주임신부(김봉희, 세자요한)가 공소에 사도회를 조직(회장-한상갑, 바오로)하여 본당 신설에 힘을 모았다.

그 해 5월에 본당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권이복(베네딕도)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맞이하여 본당의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1985년 8월에 현 위치인 동산동에 대지 820여평을 마련 성전 신축 기공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그 해 12월에

신축건물인 교육관에 임시 성전을 마련, 미사를 봉헌하였다. 1986년 5월 31일에 연건평 290평의 신축 성전을 완공하여 축성식을 거행하였으며, 1988년 2월에 수녀원을 준공하여 사랑의 씨앗 수녀회의 분원이 설치되고 신자들과 한마음으로 예비자 교리와 냉담자 회두에 전력하며 본당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당은 신자 재교육, 신심운동과 교회운동을 통하여 신앙을 다지는 한편 수요나눔미사를 통하여 본당 내 불우이웃돕기 및 외국의 불우청소년에게 학비 보조금을 보내줌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본당 공동체가기도 하다.

제2대 소순형(베르나르도) 신부는 본당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으며, 제3대 안용기(가브리

엘) 신부는 전신자의 참여, 신자들간의 단합과 사목의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신심, 교육, 구역 반모임 육성 및 선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사목회를 중심으로 7개 제단체 및 레지오 마리에 2개 꾸리아와 28개의 베레시디움 등이 본당의 사목과 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성 이명서 베드로를 주보로 모시고 있는 이 본당은 특히 이웃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신자들이 많아 타 본당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바탕으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명상의 자리

우리의 자유

주님,
당신 뜻에 따르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진보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신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외부에 있는 어떠한 악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이길 줄 안다면
어떠한 패배도
우리를 비하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의향이 성실하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풍파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못과 패배의 첫째가는
책임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줄 안다면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 샴푸 : 은뭉,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샴, 락온샴)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빠빠 012-682-6543

천 호 장 의 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현 규 학(안토니오)

☎ (0652) 253-0744

71-0404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폰소)

☎ 88-7717~8

신용카드 조회기 전북대리점

국내·외카드(국민, 비자, BC, LG, 위너스, 다이너스)가맹점신설

이 상 청(아오스딩)

기린빌딩 3층

☎ (0652) 88-9909

FAX 232-9445

휴대폰 011-651-8488

교구소식

-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때 : 8월15일(월) 성모승천대축일
 - 곳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 성모 승천 대축일미사
 - 때 : 8월15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중앙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 부제서품 대상자 선발예식
 - 때 : 8월19일(금) 오전10시30분
 - 곳 : 치명자산 성당
-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8월21일(일) 오전7시
 - 출발지 : 가톨릭센터
- ❖ 제13차 선택 주말피정
 - 때 : 8월19일~21일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 M.E 51차 주말
 - 때 : 8월19일~21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 제4차 성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때 : 8월20일~21일 오후1시30분
 - 곳 : 나바위 성당 교육관
 - 문의 : 85-0041 가톨릭센터 안내실

- ❖ 제1회 가톨릭신문 주최 독후감 공모
 - 원고 마감 : 9월15일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대상 : 전신자
 - 문의 : 전주지사(☎ 232-0268)
 - 추천도서 :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눈먼 벌치기/소셜 윤유일/어른들은 바보예요/도시락 편지/사랑을 나누는 꿈, 보로/나의 삶 나의 신앙/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한없이 타오르는 불길/추락에서 날개로
- ❖ 축! 영명
 - 20일(성베르나르도) 소순형 신부님
 - 21일(성비오) 문선구 신부님

성소모임

- ❖ 전교가르멜 수녀회
 - 때 : 8월21일 오후2시
 - 곳 : 서신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74-9262
- ❖ 사랑의 씨튼 수녀회
 - 때 : 8월21일 오후1시30분
 - 곳 : 동산동 성당
 - 문의 : (0652)212-3233

- ❖ 한국외방선교회 피정
 - 때 : 8월20일~21일 오후4시
 - 곳 :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원
 - 접수 마감 : 8월15일까지
 - 문의 : (0331)292-8490~1

■ 권해드리는 책 ■

· 봉쇄 수도원에서 정승현 신부 지음
4,500원/빅벨출판사
사제 서품 20주년을 맞아 펴낸 정승현 신부의 네 번째 글모음. 이리 성글라라 봉쇄 수도원에서 상주 신부로 머무는 동안 일기처럼 써온 글들을 엮었다.

·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예수충동 라이너 달만 지음/안명옥 옮김
3,500원/생활성서사
마르코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토대로 하여 본문을 선정하고 그것을 윤리의 관점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이 책은 크게 성서 본문 및 구조, 복음사가의 집필의도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질문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산업 폐수

산업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과 화합물질이 들어 있는 물이며, 생활 하수란 세수나 목욕, 머리를 감거나 빨래를 하고 난 물, 음식 찌꺼기가 뒤섞인 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등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합성세제와 샴푸 등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또 가축을 키울 때 나오는 오물들도 물을 오염시킵니다. 논밭과 특히 골프장의 잔디를 가꾸기 위해 뿌리는

해로운 농약도 지하수나 강을 오염시킵니다. 이러한 폐수는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걸러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비밀 배출구로 버리거나 비가 올 때 마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는 폐수들은 우리가 마시는 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을 살립니다”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호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향토회관

회갑, 결혼피로연 등
단체손님 환영
안춘자(소피아)
성락프라자 지하
(북전주 새무서 앞)
☎ 75-7666

조립식 건축
한국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해선(레미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전원 미용실
신부화장 전문
특수퍼머, 컷
고정순(에스델)
중앙동 1가 명동사우나 옆
☎ (0652)83-0753

현대피부미용전문학원
미용과·연구반
피부관리·메이크업
분장(T.V, 연극)
유학, 해외연수
김금순(테레사)
☎ 86-2211, 254-300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 연중 제20주일
 - ◎ 주일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본당 신부님 세례명 축일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 성모 승천 대축일(15일) 미사시간 안내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3. 본당 신부님 휴가: 16일(화)~19일(금)까지
※ 신부님 휴가기간 동안 미사는 없습니다.
 - 4. 사무원 휴가: 15일~20일
 - 5. 모임: ①여성연합회(16일 전 10시30분)
②대건회(21일 장엄미사 후)
 - 6. 각 구역 전화번호 및 단체별 전화번호 속히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 7. 본당 전화번호부에 실을 광고를 접수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 8. 금주 청소: 중노5, 6반
차주 청소: 중노8, 9반
- 지난주 봉헌금: 901,280원 □ 교무금: 1,176,500원

- ◎ 연중 제20주일! (8월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1. 프란치스코3회: 8월14일(오늘) 오후 2시
- 2. 울드레아: 8월11일(목) 오후 8시
- 3. 성모회: 8월21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4.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8월15일(월) 오전 6시, 오전 10시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1. 축! 영세: 15일 10시30분 공식미사중(성모 승천 대축일)
 - 2.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오전 6시 · 오전 10시30분
 - 3.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 4.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 5. 해설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6.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7.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8. 부녀회: 18일(목) 오전 10시
 - 9. 성우회: 21일(일) 공식미사 후
 - 10. 보좌 신부님 휴가: 16일~20일
 - 11. 임 루시아 수녀님 피정: 16일~27일(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12. 임 루시아 수녀님 휴가: 27일~9월1일
 - 13. 성당 청소: 20일(토) 이땅의 빛, 밝히오리다Pr
 - 14.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김성원 가족
 - 15. 차주 전례: 해설-조옥래, 독서-이준철 부부
 봉헌-김영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419,750원 □ 교무금: 761,100원
□ 감사헌금: 20,000원

-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2. 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
①페루 선교사를 위한 헌금 있음
②미사시간: 오전 5시30분, 9시,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7시
③축! 첫영성체(37명): 공식미사중
④성모 승천 기념 제1회 다비드컵(테니스)대회: 공식미사 후
 - 3. 성모회: 16일(화) 오전 11시
 - 4. 배에따회: 17일(수) 오전 11시
 - 5. 구역반장 회의: 18일(목) 오전 11시
 - 6. 감사합니다: ①엠프헌금-100만원(의명) ②감사헌금-20만원(박재홍, 배드로) ③시설헌금-10만원씩 6명(의명) 100만원(의명) 50만원(의명) ④회합실 바꿈 기증-선종기 22만원(전화자, 안광라) 칠관-60만원(원수관, 약고버) 표관(오금탁, 무치오)
 - 7. 성전 보수공사 및 회합실 개축공사 완료: 그간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8. 성당 새 음향시설(엠프)완비: (1,530만원) 사라회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22,76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장삼근

- 1. 성모 승천 대축일: 15일(월) 미사-오전 10시
 - 2. 본당의 날 행사: 성모 승천 대축일 공식미사 후
 - 3.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중
 - 4. 모임: ①안나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 5. 축! 어린이 첫영성체: 15일(월) 성모 승천 대축일 공식미사중
 - 6. 금주 청소: 천사들의 모후Pr
 - 7. 차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 8.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봉헌-이상용씨 부부
 - 성모 승천 대축일: 해설-이춘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첫영성체 어린이
 -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최경림 ②송정자
 봉헌-황옥섭씨 부부
- ※ 교리상식
호산나(Hosannah)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복음서에서는 6번 사용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지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며 부르짖는 환호의 소리였다.
- 지난주 봉헌금: 366,540원 □ 교무금: 270,000원

- ◎ 축! 세례 14일 후 4시, 31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 세례자 첫영성체 및 축하식: 성모 승천 대축일 공식미사
 - 2. 성모 승천 대축일: 의무축일 아침 5시30분, 9시, 10시30분, 후 3시(어린이) 저녁 7시30분미사, 페루 선교사 2차헌금.
 - 3. 예비신자 모집기간: 28일까지 L.M단원 1인1도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합시다"
 - 4. N.I.P(성 본당상) 수련회: 19~21일 사목회원 3명 이상
 - 5. 부제품 선발예식: 19일 전 10시30분 치명자산 성당 노혜동(로렌조) 학사님을 위해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 6. M.E 51차 강습회: 19일~21일 천호 임병구 송옥주 부부, 이원재 윤미숙 부부, 김경환 김현옥 부부(의인)
 - 7. 제4차 성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0일 후 1시30분~21일 후 4시30분 나바위, 회비-2만원, 회당자 15일까지 접수
 - 8. 평화기사회 단합대회: 18일 전 10시 교산, 회비-일만원.
 - 9. 회의: 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임마누엘-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10. 성소 후원의 날: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11. 탈삼미사: 오늘 12시 2-2반 정만모(요아킴)대
 - 12. 의명 은인에게 감사: 감사예불 20만원
 ◎ 신앙생활 끝? 잠에서 깨어나 성모 승천을 맞이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1,048,000원 □ 교무금: 1,524,000원